



중하기 때문이다.

Merriam-Webster(미국 온라인 영문 사전)에서는 only의 주된 정의를 '오로지, 유일한'이나 '더 이상 없는'으로 정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한다'는 뜻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야박하고 의문스러운 성격의 비난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신념과 권리에 대한 비난들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우리가 어떤 노동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거나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테레사 수녀가 널리 알려진 선행으로 받은 노벨상 상금을 문둥병 환자 구호소 건립에 사용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으레 어떤 사람의 노력을 비난할 때, "저 사람은 오직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라고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끼는 특정한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only'라는 단어를 왜곡하는 것처럼 '돈'이라는 단어를 왜곡하는 것은, 순간의 왜곡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유시장 내 자발적인 교류의 장에서 우리는 개인의 권리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는다. 그렇기에 '돈'이라는 단어를 족제비어를 통해 왜곡하는 것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지 오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돈'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어감을 가미하고 왜곡하게 되면, 이미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체제 중 하나인 자본주의 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에서는 '돈'이라는 단어에 대중적 혐오감을 조성하며, 족제비처럼 교묘하게 개개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돈과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적 수사법은 그릇된 결과를 불러온다. 개인의 노력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이룩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돈'을 벌어 스스로에게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사회에 다양한 발전을 불러온 사람들을 비난하기 보다, 그들의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사회에 창출한 긍정적 결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be-thankful-those-who-only-do-it-money>